

2020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 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⑩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이 남의 생명을 빼앗기를 좋아하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악행을 징계하겠다.” 세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빛을 띠자 처녀가 말했다. “만약 오라비가 멀리 피해 스스로 뉘우친다면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모두 기뻐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치며 도망갔다. 처녀가 김현에게 돌아와 말했다. “처음에 낭군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부끄러워 짐짓 사양하고 거절했으나 이제는 숨김없이 감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와 낭군은 비록 유(類)는 다르지만 하루 저녁의 즐거움을 함께 했으니 그 의리가 부부의 정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세 오빠의 악은 이제 하늘이 미워하시니 저희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려 하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낭군의 칼날에 죽어 은덕을 갚는 것과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市街)에 들어가 사람을 해치면 나라 사람들로서는 저를 여쭙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금께서 높은 벼슬로써 사람을 모집하여 저를 잡게 할 것입니다. 그때 낭군은 겁내지 말고 저를 따라 성의 북쪽 숲까지 오시면 제가 낭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현은 말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함은 떳떳한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종류의 사귀는 대개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정을 맺은 것은 진실로 다행한 일이외다. 그런데 어찌 차마 아내의 죽음을 팔아 벼슬을 구할 수 있겠소.” 그러자 여자는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이제 제가 죽게 됨은 하늘의 명령이며 또한 제 소원입니다. 낭군께서는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 다섯 가지의 이로움이 오는데 그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하고 그들은 마침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중략)… “어젯밤 낭군이 저와 마음 깊이 정을 맺던 일을 그대로 걸코 가버리여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전부 흥륜사의 장(醬)을 바르고 그 절의 나팔소리를 들으면 이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찌르자 곧 범이었다. …(중략)… 김현이 죽을 때 지난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 일을 붓으로 적어 전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이 일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논호림(論虎林)이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전한다.

(나) ‘인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심리적 조건이다. 인정의 형태는 사랑, 권리부여, 사회적 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사랑은 상대를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지닌 자연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의 욕구와 감정을 정서적으로 배려하는 행위이다. 개인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이 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인정될 때, 자신감이라는 긍정적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권리부여는 상대를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대우하는 인지적 존중의 행위이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정당한 요구 충족을 바로 나의 의무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개인이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셋째, 사회적 연대의 형성은 상대의 능력과 업적을 공동체의 가치와 연계하여 그 존재 가치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타인들로부터 자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자신도 공동체의 의미 있는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 사회적 인정을 통해 실현되는 성공적 자아실현이 사회적 가치의 일방적 실현으로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사회적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가치에 대한 자아의 일방적 복종과 동일하게 된다. 즉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은 기존 사회에서 인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 생활방식과 인간상에 복종하여 자신을 형성해야 할 뿐 아니라 이와 배치되는 삶의 가능성은 포기해야 한다. 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자기 스스로가 부합하는 존재임을 극단적으로 증명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자아실현이 개인의 창조적 자아실현으로 이해된다면 사회적 인정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창조적 자아실현이란 기존의 가치질서에서 요구하는 자아상에 대한 거부이며 기존 질서에서 인정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회적 인정을 요구와 투쟁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기존 가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수단이 아니라 문화적 변동을 가속화시키는 변혁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인정개념이 전제하는 사회적 인정의 대상과 내용은 확장되고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개성적인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하에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1-1. (가)에 나타난 김현의 역할을 (나)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와 ㉢에 들어갈 내용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각 40자 이내) [30점]

인정의 형태	김현의 호녀에 대한 인정 행위
정서적 배려	정을 맺었다.
인지적 존중	㉡
사회적 존재 가치 부여	㉢

㉡ : \_\_\_\_\_

㉢ : \_\_\_\_\_

1-2. ㉣과 관련하여, 호녀의 죽음이 지닌 의미와 한계를 (나)에 나오는 단어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160자 이내) [30점]

\_\_\_\_\_

\_\_\_\_\_

\_\_\_\_\_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쟁력은 본래 기업을 평가하는 개념이었다. 경쟁 기업들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시장 점유율과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기업을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개념을 국가에 적용한 것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면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이므로 국가경쟁력이란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오늘날 여러 단체들이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경쟁력 순위 향상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다. '경쟁력'은 서로 경쟁하는 비교 대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주체이어야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진다. 기업의 경우 시장 경쟁의 결과로 승자가 결정되고 패자는 손실을 보거나 시장에서 퇴출된다. 다른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가가 수익성과 생존가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개념은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국이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가가 아니고 해당 국가의 절대적 생산성 자체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1%이고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은 3%라면 이는 일본의 생활수준이 미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지 미국의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활수준은 절대적 생산성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며 생산성 증가율의 국가 간 격차는 생활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경쟁력 개념은 무의미할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한다면 그것은 무역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국가 간의 무역은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호혜적인 행위이며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활동이다. 무역 상대국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국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 피해가 될 일은 없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면 수입 제한이 그 수단일 것이고 그 결과 세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나) 무역이 호혜적인 행위라고 하여 국가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서도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승자와 적은 이익을 얻는 패자가 나뉘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IT제품의 예를 들어보자. 두 국가가 서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에 특화하고 그 결과물을 교역하면 두 국가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 하지만 농업은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 속도가 느린 반면 IT산업은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농업에 특화한 국가는 생산성이 정체하는 반면 IT산업에 특화한 국가의 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무역을 통해 양국이 모두 혜택을 얻겠지만 어떠한 산업에 특화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가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것이다.

(다) 국가경쟁력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 분석 범위와 분석 단위를 동일시하는 오류이다. 국가의 생활수준은 국가의 절대적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의 생산성은 개별 기업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높아진다. 그런데 개별 기업의 생산성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뿐 아니라 여러 국가적 차원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가적 차원의 요인이란 거시경제의 안정성, 국가 재정의 건전성, 정치 제도, 사회 안전망, 교육 제도, 국가 R&D 투자 등을 포괄한다. 국가가 실제 경쟁하는 주체로서 분석 단위가 아니더라도, 경쟁 주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국가 차원에서 존재한다면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분석 범위로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요인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 경쟁력 수준 역시 국가 별로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산업의 중요성은 '첨단산업', '성장산업' 등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술적 특성이 아니라 개별 산업에서 한 국가가 달성하고 있는 경쟁력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국가경쟁력은 의류, 신발산업 등 '전통산업'에서 높은 생산성으로 나타나고, 독일의 경우에는 자동차, 광산기계 산업과 같은 '성숙산업'이 국민들이 누리는 높은 생활수준을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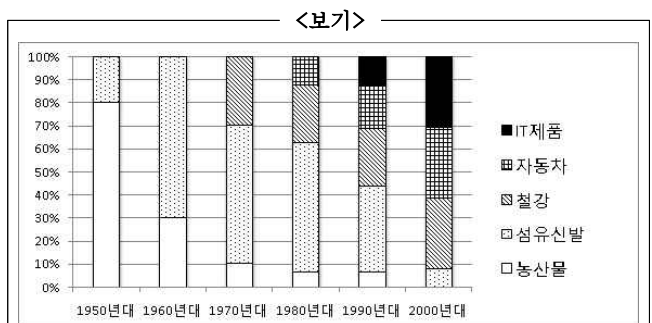
2-1. (가)에서 ㉠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100자 이내) [20점]

2-2. <보기>의 주장을 (가)와 (나)의 입장에서 평가하시오. (180자 이내) [20점]

**<보기>**

최근 A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AI 로봇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A국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AI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2-3. <보기>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A국의 수출품목 구성표와 A국 정부 정책의 특징에 대한 서술이다. A국의 정책에 대해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평가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A국은 정부의 산업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이다. A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을 배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산업에 골고루 투자하지 않고 일부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철학자 존 설(John Searle)은 다음과 같은 사유실험을 통해서 디지털 컴퓨터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당신이 어떤 방에 갇혀있다고 해 보자. 당신의 임무는 중국어로 쓰인 질문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매뉴얼을 찾아 중국어로 쓰인 답변지를 방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다. 당신은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에게는 중국어 문자들을 조작할 수 있는 우리말로 된 매뉴얼이 주어진다. 가령, 규칙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러이러하게 생긴 기호를 첫 번째 바구니에서 꺼내어서 두 번째 바구니에 있는 저러저러하게 생긴 기호 옆에 위치시킬 것.” 이제 방으로 어떤 중국어 문자열이 전달된다고 하자. 당신은 규칙을 사용해서 만든 다른 중국어 문자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방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방 전체가 중국어를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는,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매뉴얼에 따라 중국어 문자를 조작하고 있는 당신은 여전히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방 전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해당하며, 매뉴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 기호를 조작하는 당신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적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몸소 수행하는 것만으로 당신이 중국어를 이해하게 될 수 없다면, 어떤 컴퓨터도 단순히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어를 이해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기호 조작으로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은 의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알파고와 같은 조금 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다. 그것이 단순히 기호 조작을 통해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인 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철학자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다음과 같은 논증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생각과 의미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인간의 두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은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전기 신호를 받아서 또 다른 신경세포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일이다. 각 신경세포가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역할은 비교적 간단한 컴퓨터 장치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두뇌 신경세포 중 몇 개를 적절히 프로그래밍 한 인공 신경세포로 대체한다고 하자. 이것이 당신의 사유 능력과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몇 개의 신경세포를 인공 신경세포로 대체한다고 하자. 이 역시 당신의 사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당신의 신경세포 모두를 인공 신경세포로 대체한다면, 당신은 인공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복잡한 컴퓨터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런 점진적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생각하는 컴퓨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현존하는 어떤 컴퓨터도 이 정도로 뇌를 모사하는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두뇌에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두뇌를 세포 수준에서 본떠서 만든 컴퓨터가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3-1.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바탕으로 하여 (가)에 나타난 논증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일반적으로 부분이 어떤 특성을 결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루어진 전체 역시 그 특성을 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가령, 수소와 산소가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이 불을 끌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오류이다.

3-2. (나)의 논증이 옳다고 해도 알파고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가)와 (나)를 참고해서 서술하시오. (80자 이내) [20점]

3-3. 아래를 읽고 (가)와 (나)는 각각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실현가능성을 어떻게 볼지 서술하시오. (300자 이내) [20점]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으로 구분한다.  
○ 약한 인공지능: 실제로 사유와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  
○ 강한 인공지능: 진정한 의미에서 사유와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을 의미.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이동성을 분석할 때, 직업에 영향을 받는 사회 계층적 지위의 변화에 주목해서 세대 간 계층이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계층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사회구조에 보다 많은 기회가 존재하거나 기회에 대한 접근이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간 비교에서 어느 사회가 계층이동이 더 자유로운 사회인지 알기 위해서는 세대 간 총 일자리 수의 증가/감소, 산업 구조의 변동과 같은 요인들을 통제 한 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직업(계층)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정도를 통해 결정되며, 부모와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를수록 계층이동이 유동적인 사회라 볼 수 있다.

교육은 이러한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과거에는 토지나 여타 재산이 중요한 지위 세습의 요인이었지만 업적주의(meritocracy)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고 직업을 얻는데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이동 혹은 지위세습의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서 기능주의적 입장은 개인의 학력 성취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제약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며, 그 결과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점진적인 평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그 논거를 산업 사회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즉, 국가에 의해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세습에 의해 직업과 계층이 결정되지 않는 현대 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교육은 하류계층 출신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으며, 대중교육 혹은 공교육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회 계층적 편견을 감소시키거나 나아가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기회가 확대되면 특히 하층민들에게 상승이동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 교육은 사회계층의 종속변수이기보다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독립변수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교육기회의 평등과 개방적 성취사회의 이상은 상당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선진 산업사회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낙관적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즉, 사회 계층에 따라 교육은 상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그 결과 -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 사회이동은 상당히 제약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근대교육체제는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 즉 ㉡ 해방이 아니라 예속,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전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보다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향후 사회에 진출해 부모와 비슷한 상위계층에 올라서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하위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적 분화와 고착화는 세습이 아니라 업적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되면서, 교육은 그 어떤 사회 불평등화 기제보다도 정상성을 갖춘 불평등 기제가 되는 것이다.

4-1. 아래 A 사회와 B 사회 중 어느 사회가 더 개방적 사회인지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A 사회> (단위: 명)

	자녀의 직업		계
	단순노무직	전문직	
부모의 직업	단순노무직	전문직	계
	120	280	400
	30	70	100
계	150	350	500

<B 사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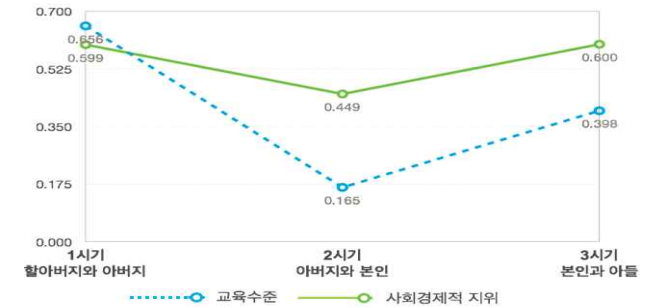
	자녀의 직업		계
	단순노무직	전문직	
부모의 직업	단순노무직	전문직	계
	140	260	400
	10	90	100
계	150	350	500

4-2. <보기>는 ㉠, ㉡ 중 어느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문과 <보기>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학교는 지배계급의 문화적 상징이 제도화된 기관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의 선발 및 평가는 지배적 상징을 체화하고 문화자본을 소유한 계급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 문화자본이란 취향, 지식, 언어, 학위 등을 포함하는 문화적 능력을 의미한다. 문화자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의 비공식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특정 계급의 취향과 가치관으로 체화되어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보와 지식 역시 문화자본이 될 수 있다. 특히 학력자격시장의 변동에 대한 정보는 학력을 획득하거나 혹은 노동시장에서 학력자격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부모의 정보통신 기술 능력 및 독서량, 외국어 의사소통과 같은 '인지적 능력' 역시 문화자본으로서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3. 아래 그래프는 C국의 세 시기에 걸친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각각에 대한 세대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시기에서 3시기가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이동성의 변화를 그래프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문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240자 이내) [20점]



\* 상관관계수: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다.  
 \*\* 시기별 상관관계수는 각각 아버지, 본인, 아들이 35세인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8세기 초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인들은 주민들의 합의에 기초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폭넓은 자치를 누리고 있었다. 7년 전쟁(1756~63)이 끝나고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각종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자, 식민지인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식민지인들의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뿐 아니라, 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정당한 권력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주장은 이런 생각을 대변하였다. 영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영국정부에 저항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1774년 소집된 대륙회의에서 다수를 차지한 ㉠ 독립파는 이러한 사상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전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다. 자연은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했는데, 이 평등에서 불신이 생겨난다. 같은 것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가지려 한다면, 그 둘은 서로 적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키려 하게 된다. 또한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정(正)과 사(邪)의 관념,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법의 지배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뿐이다.

이런 비참함을 극복하고자 설립하는 국가는 ‘다수’의 인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결정에 따라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권리 전체를 양도하는 주권 설립 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여 주권을 선포한 이상, 주권 설립에 반대한 자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발적으로 설립 집회에 참가했다면, 이로써 그는 다수의 결정을 준수할 의지를 충분히 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권리는 만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주권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주권의 상실을 주장하거나 복종 의무의 파기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권력 행사의 과정에서도 주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백성들로부터 불의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권리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원을 파악하려면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처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자연상태란 평등 상태이다. 인간은 모두 종(種)과 신분이 같은 채로 평등하게 태어나 자연의 같은 이점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살아가므로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자연 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며, 법의 지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자연법의 근간을 이루는 이성 은 전 인류에게 누구도 나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본래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향유할 수 있다.

인간은 안락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자신의 재산을 향유하고 공동체 바깥의 침탈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합의를 이루어 공동체를 결성하는 계약을 맺는다.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의 범죄를 징벌하는 권력이 없이는 어떤 정치사회도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원이 각자의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위임해, 누구나 어떤 경우라도 사회가 제정한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정치사회가 가능해 진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동의에 따라 단일한 정부 아래 주권이 설립되면 그 공동체는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권력을 가지며,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에 속한 개인들의 동의뿐이다. 그렇게 한 몸이 되면 당연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 즉 다수의 결정이라는 큰 힘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몸, 한 공동체로서 행동하고 유지하기가 불가능해 진다.

5-1. ㉠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

---

---

5-2. 자연상태에 대한 (나)와 (다)의 입장 차이를 서술하고,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0자 이내) [20점]

---

---

5-3. 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나)와 (다)의 입장 차이를 서술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

---



# 2020학년도 논술(AAT) 모의고사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인문계열)

## 인문계열 1번 예시 답안

1-1.

㉑: 아내로 인정하였다.

(혹은) 아내의 죽음을 팔아 벼슬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㉒: 호녀와의 일을 붓으로 적어(글을 써서) 세상에 전하였다.

1-2.

호녀의 죽음은 자신이 인간 사회가 요구하는 ‘희생(의리)’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는 극단적인 희생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가치를 더욱 고착화할 뿐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없다.

## 인문계열 1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의 세 가지 형태에 맞추어 김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li> <li>-㉑는 아내로 인정하였다는 내용, ㉒는 호녀와의 일을 기록하여 세상에 알려 전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각각 15점씩</li> <li>-㉒ : 붓으로 적었다. 혹은 세상에 전하였지만 서술된 경우 10점</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3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녀의 죽음에 대해 ‘인정을 통한 자아실현의 방식’과 관련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서술할 것</li> <li>-의미와 한계 각각 15점씩 부여</li> <li>-호녀의 죽음 :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에 자신이 부합하는 존재임을 극단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임. 일방적 희생을 통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방식임.</li> <li>-한계 : 역설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게 됨, 창조적 자아실현이 아님. 기존의 가치를 고착화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없음.</li> <li>-극단적 희생의 방식,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들어가야 함. 바람직한 자아실현으로서 한계를 지적해야 함.</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30

## 인문계열 2번 예시 답안

2-1.

‘경쟁력’은 서로 경쟁하는 비교대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국가 경쟁력이 의미 있으려면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주체이어야 한다.

2-2.

(가)는 무역을 호혜적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진에 의해 AI 로봇에 특화된 국가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는 첨단산업인 AI 로봇 산업을 육성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2-3.

A국 정부는 기술발전과 시장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나)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입장에서는 투자 당시 A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 인문계열 2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답안에 있는 문장을 찾아 써야 함</li> <li>- 예시 답안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같은 취지면 감점 없음</li> <li>- 다른 내용이지만 관련이 있는 것이면 5점</li> <li>- 관련이 없는 내용이면 0점</li> </ul>	2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는 무역이 호혜적이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10점), (나)는 첨단 산업을 육성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는 점을(10점) 명확히 서술해야 함</li> <li>- (가)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 속도와 교역 상대국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쓰면 2점 감점</li> <li>- (나)에서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쓰지 않고 승자와 패자가 있으므로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서술하면 2점 감점</li> <li>- 그 밖에 논리적 구성이나 표현 등을 감안하여 1-3점 감점</li> <li>- (가)와 (나) 각각에 대해 관련은 있으나 답이 아닌 것을 쓴 경우 기본점수 각 3점 부여</li> <li>- (가)와 (나) 각각에 대해 관련이 없는 내용을 썼거나 쓰지 않았을 경우 각 0점 부여</li> </ul>	2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발전, 시장성장이 빠른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으므로 (나)의 주장에 부합하나(10점), 투자 결정 당시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의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10점) 점을 명확히 서술해야 함</li> <li>- (가)에서 기술발전, 시장성장이 빠른 산업을 쓰지 않으면 5점 감점</li> <li>- 둘 중 하나만 쓰거나 같은 취지여도 인정</li> <li>- (다)에 대해 자의적으로 설정한 첨단산업에 투자했다고 써도 인정</li> <li>- (다)의 주장은 제대로 이해하였으나 A국 정부가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했다고 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쓰면 5점 감점</li> <li>- (가)와 (나) 각각에 대해 관련은 있으나 답이 아닌 것을 쓴 경우 기본점수 각 3점 부여</li> <li>- (가)와 (나) 각각에 대해 관련이 없는 내용을 썼거나 쓰지 않았을 경우 각 0점 부여</li> </ul>	20

### 인문계열 3번 예시 답안

3-1.

방 안에 사람이 의미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다는 것으로부터, 전체 컴퓨터 시스템에 해당하는 방 전체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3-2.

알파고는 신경세포 수준에서 뇌를 본떠서 만든 컴퓨터가 아니라 기호 조작을 통해 작동하는 컴퓨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3.

(가)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약한 인공지능을 옹호할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가 기호 조작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점 때문에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가능성은 배제한다. 따라서 (가)는 강한 인공지능의 가능성은 부정할 것이다. 반면 (나)는 인간의 두뇌 전체가 컴퓨터로 모사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런 경우에 인간과 똑같은 사유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약한 인공지능 역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 인문계열 3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 제시된 오류(“분해의 오류”)의 사례로 여겨지는 바를 (가)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전체 관계(방 안의 사람-방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부분의 의미 이해 능력 결여가 전체의 의미 이해 능력 결여로 이어지지 않음을 파악한 경우 (20점)</li> <li>- 문제가 되는 부분-전체 관계를 CPU와 컴퓨터 사이의 관계로 본 경우 (15점)</li> <li>- 그 외의 경우 (0점)</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20
3-2	<p>▶ (가), (나)의 논증이 알파고 사례에 갖는 함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파고가 신경세포 수준에서 뇌를 본떠서 만든 컴퓨터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 경우 (이와 더불어 알파고가 의미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다는 점을 추가적인 이유로 제시해도 감점 없음) (20점)</li> <li>- 알파고가 의미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다는 점만을 이유로 제시한 경우 (10점)</li> <li>- 그 외의 경우 (0점)</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20
3-3	<p>▶ (가), (나)로부터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유추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아래 예시 답안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나) 각각에서 약한/강한 인공지능의 실현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이유를 덧붙인 경우 (20점)</li> <li>- (가), (나) 중 하나에서 약한 인공지능 또는 강한 인공지능의 실현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10점)</li> <li>- 그 외의 경우 (0점)</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20

### 인문계열 4번 예시 답안

4-1. A 사회가 더 개방적이다. 부모의 직업(계층)이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을수록 개방적인 사회인데, A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직종에 있는 경우가 B 사회보다 많다.

4-2. <보기>는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4-3. 2시기는 3시기에 비해 아버지와 본인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가 낮지만 3시기가 되면서 세대 간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강화되면서 사회이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한 분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한다.

### 인문계열 4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로 주어진 표를 분석하여 제시문에 주어진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설명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li> <li>- 개방적 사회를 직업(계층)의 세습 정도(혹은 부모와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정도)로 정의하고, A 사회가 그 정도가 더 큼을 서술한 경우(20점)</li> <li>- 위와 동일한 논증을 폐쇄적 사회를 기준으로 진행한 후, A 사회가 더 개방적이라고 서술한 경우(20점)</li> <li>-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정도만 추상적으로 설명한 경우(13점)</li> <li>- 종합적인 진술 없이 부모와 자녀 세대의 단순노무직-전문직 / 전문직-단순노무직 (혹은 단순노무-단순노무 / 전문직-전문직) 중 한 가지의 차이만 서술한 경우(10점)</li> <li>- A 사회라고 답했으나 근거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계산 오류 포함)(3점)</li> <li>- B 사회라고 답한 경우(0점)</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20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의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lt;보기&gt;의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입장을 근거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li> <li>-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 성취(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논리적으로 기술할 경우(20점)</li> <li>- '문화자본'이 답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10점 감점)</li> <li>- '문화자본'(혹은 부모의 능력/배경)이 학업 성취(학습,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성이 서술되지 않은 경우(10점 감점)</li> <li>- 교육이 불평등 재생산 기제라는 추상적 설명만 있는 경우(5점)</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20
4-3	<p>(1)그래프 독해를 통한 사회이동성 변화 설명과 현상에 대한 (2)해결방안을 각각 10점씩 나누어서 평가</p> <p>(1) 10점 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래프 상의 변화를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li> <li>- 각 시기별 세대 간 상관관계를 정확히 독해하고 3시기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면서 세대 간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강화되어 사회이동성이 저하되었다고 서술한 경우(10점)</li> <li>- 세대 간 상관관계 변화에 대한 언급 없는 경우(5점 감점)</li> <li>- 3시기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사회이동성이 저하되었다는 서술이 없을 경우(5점 감점)</li> <li>- 그래프 독해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0점)</li> </ul>	20

(2) 10점 배점

▶ 사회이동성 증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함. (아래 예시 답안 참조)

- 공교육(교육 기회의 대중적) 확대에 대한 주장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서술이 들어갈 경우(10점)
- 제시문에 근거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수준의 답변일 경우 감점
- 지나치게 추상적인 수준의 답변일 경우 감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 인문계열 5번 예시 답안

5-1.

정당한 권력의 행사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유래해야 하며,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

5-2.

(나)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전쟁으로 보고, (다)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사회로 파악한다. 이는 평등과 자연법에 대한 양자의 견해 차이 때문이다.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평등하지만 그것에서 불신이 생겨나고, 또한 그곳에 법의 질서가 없다고 본다. 반면 (다)는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나 평화롭게 살아가며,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5-3

(나)는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보지만, (다)는 공동체가 다수의 결정에 의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 인문계열 5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p>▶ 보기의 내용 속에서 독립파가 공유한 사상 중 (나)의 내용과 상충하는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평가함</p> <p>-㉠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권력 행사에 대한 독립파의 비판이 (나)의 '주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충돌함을 파악한 경우 (10점)</p> <p>-㉡자연권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하는 독립파의 사상이 (나)의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주권 상실 주장하거나 복종 의무 파기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과 충돌함을 파악한 경우(10점)</p> <p>-㉠, ㉡ 중 하나만 설명하면 (10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5-2	<p>▶ (나), (다)의 자연 상태에 대한 입장을 대표하는 표현을 찾아내고, 이런 차이가 평등과 자연법 개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함</p> <p>- (나)의 입장: '만인에 대한 전쟁' (이외 전쟁, 투쟁, 싸움 등 유사표현 적절히 점수부여, 4점)</p> <p>- (다)의 입장: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사회' (이외 유사표현 적절히 점수부여, 4점)</p> <p>- (나) 평화와 자연법에 대한 입장(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이 평등하나 평등이 불신을 일으킴</li> <li>*㉡자연 상태에 자연법의 지배가 없음</li> <li>*㉠, ㉡ 중 하나만 설명하면 (3점)</li> </ul> <p>- (다) 평화와 자연법에 대한 입장(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이 평등하고 이 평등으로 평화를 누림</li> <li>*㉡자연 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음</li> <li>*㉠, ㉡ 중 하나만 설명하면 (3점)</li> </ul>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5-3	<p>▶ (나), (다)가 국가 설립 이후 권력행사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각각 가진 견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p> <p>- (나):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권력 행사 (10점)</p> <p>- (다): 공동체가 다수의 결정에 따라 권력 행사 (10점)</p> <p>-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 인문계열 6번 예시 답안

6-1.

(가)와 (나)는 낙태에 대해 찬성하지만 그 근거는 서로 다르다. (가)는 태아가 인격체라고 할지라도 임신부의 권리, 즉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가 허용된다고 본다. 이에 비해 (나)는 태아를 인격체로 보지 않으며 공리의 증진을 위해 낙태가 허용된다고 본다.

6-2.

(1) ㉠: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2) 살생이 금지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자의식이라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 세상에는 물고기, 나무, 바위 등 독특성을 지닌 존재가 많지만 그러한 독특성이 인격체로서의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를 죽이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 인문계열 6번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 낙태에 대한 제시문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모두 서술한 경우(20점)</li> <li>-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0점)</li> <li>-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20
6-2	<p>(1)번 (10점 배점)</p> <p>▶ ㉠에 들어갈 대전제를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10점)</li> <li>- 대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li> </ul> <p>(2)번 (20점 배점)</p> <p>▶ ㉠에 대해 (나)의 입장에서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음.(아래 예시 답안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생이 금지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자의식이라는 특성을 지녀야 함. 그런데 독특성은 인격체로서의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를 죽이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음.</li> <li>-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li> </ul>	30